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朱赫
編輯部長 李相奉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76年度 入學要項 發表

豫試成績 30% 反映키로

試驗科目 일부 變更 60%、客觀式 40%

主觀式 60%

○……1976學年度 本校 新入生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었다。지난 19일 발표된 입학요……○
○……항에 따르면 考査期間은 76년 2월5일부터 10일까지로 後期이며, 考査科目은 必須科目과……○
○……選擇科目制로하되 科目은 일부變更했다。……○

敎務處가 발표한 新入生入試요강에 따르면 예비고사 성적반영은 작년도의입학시험총점에 20%반영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0%로높여 반영하도록 하여 예비고사의 비중을 높였다。

出題方法은 주관식 60%객관식 40%로 고등학교교과서를 중심으로출제된다。

작년도에 실시했던 共通必須 系列必須科目制를 없애고 76년도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제로 변경했다。

즉 必須科目은 人文系에 국어, 영어, 국사, 理工系에 국어, 영어, 수학 (I) 이며, 選擇科目은 人文系에 일반사회, 가정 수학 (I) 이며, 理工系는 일반사회, 가정, 국사 중 擇一하도록했다。

고사과목배점은 국어, 영어가 각 1백50점이며 일사, 국사, 수학(I), 가정은 각 1백점씩이다。

또한 미술과와 연영과의 실기과목배점은 1백50점, 체교과의 실기배점은 체능고사와 기능검사를 합치총 1백60점이다。

원서교부접수기간은 원서교부가 76년 1월12일부터 2월3일까지, 접수는 1월19일부터 2월3일까지이고 전형기간은필답고사가 2월5일, 면접·실기및 신체검사가 2월6일이며, 합격자발표는 2월13일 있을 예정이다。

신체검사는 경찰행정학과 공과대 조선학과, 농생과, 文理大 화학과, 農林大 농생과, 師範大 과교과만 실시하며 경찰행정학과는 신장165cm 체중55kg이상에서럴, 청력이 정상이며 색맹과 폐결핵이 아닌자, 공과대 전학과, 화학학과, 농생과, 과교과는 색맹이 아닌자라야한다。

특별전형으로는 도서벽지 출신으로 출신학교장, 교육감 추천서를 첨부한 사범대 지원자, 농업계고교 농산학과 졸업자 및 身障者로 졸업후 영농을 희망하는 농림대 지원자 및 어학생은 특별전형하게 된다。

그리고 제2지망의 선택은 제1지망의 계열에 상관없이 지망할 수 있다。

<法句經>

今週一首

如可意華,
色好無香.
工語如是,
不行無得.

사랑스러운 예쁜 꽃이 빛깔만 고와 향기가 없듯,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夏季奉仕活動 활발

11個部隊 4백50여명 參加

2學期開講 20日

20~25日、登錄金 納付

敎務處 受講申請은 登錄前도

◇夏季農漁村奉仕團 發團式 광경.

大學生의 奉仕精神과 協同精神을 기르는 한편 새 마을 奉仕를 위한 夏季農漁村奉仕活動이 75年度 本校에서는 11個部隊로 나눠 實施된다。

이번 農漁村 奉仕活動은 지난 24일 奉仕班로 떠난 第8部隊(강릉팀) 11部隊(PTP)를 필두로 오는 8月8日 江原道평주군송림 등 15個부락에서 실시되고있다。

이들 各部隊의 40여명의 指導敎授 1명씩 참가, 직접 봉사활동을 지휘하게된다。

올해 夏季 農漁村奉仕活動에는 男學生 3백21명, 女學生 99名등 총 4백20명이 참가했다。

奉仕班 부락민을 婦女班, 兒童班, H班등으로 나눠 夜學을 열어 근로봉사, 農事技術指導, 병충해구제등의 위생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奉仕班에 떠나기앞서 이번 22일 9시 第一會議室에서 참석한 가운데 李東東(농대교수·文敎部산하 大學生 봉사활동중앙위원 위원) 교수로부터 봉사활동에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學生課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또한 23일에는 교수실에서 李瑄根總長을 비롯 各 學處長이 참석한 가운데봉사단 발단식을 가졌다。

本校는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文敎部로부터 醫藥品·冊子를 비롯한 物資·現金등 약 34백여원상당의 보조를 받았다。

▲제1부대(농연·대표=朴相大·농경4)=7月30~8月8日까지 전북정읍군내장면 부전리백석, 운암부락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제2부대(농연·대표=朱文秀·건축4) 7月31~8月10日까지 전북정읍군내장면 상암리에서 39명의 봉사대원이 근로봉사 활동및 住民을 부녀반 아동반 4H반등으로 구분하여 「게일」지도와 야학등, 지도교수 金熙坤 學處長이 참석한 가운데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제3부대(농연·대표=李鍾根·농학3) 39명의 대원이 전북 정읍군 내장면서 근로봉사활동을 하고 근로봉사및 야학등, 지도교수 김용철。

▲제4부대(농연·대표=柳在浩·농학3) 39명의 대원이 전북 정읍군 내장면부 전리 개운·신성 부락에서 근로봉사에 주력。지도교수 金興培。

▲제5부대(알교학생회·대표=정상우·불교3) 40명의 대원이 전북 정읍군 내장면 구암리 석고촌에서 근로봉사활동과 현지주민에게 佛敎의 말씀을전하는등 정신계몽을 하게된다。

▲제6부대(종연·대표=閔海·국교2) 30명의대원이 7월29~8월5일까지 장흥읍도 영월군 삼동면 직동리에서 근로봉사와 각종 대민지도 야학등 지도교수 申奉善。

▲제7부대(KUSA·대표=李瑄根·체육지도과) 이 원서교부 접수기간은 원서교부가 76년 1월12일부터 2월3일까지, 접수는 1월19일부터 2월3일까지이고 전형기간은필답고사가 2월5일, 면접·실기및 신체검사가 2월6일이며, 합격자발표는 2월13일 있을 예정이다。

▲고사=李瑄根총장▲회장=孔泰煥▲부회장=孔泰煥▲사무국장=金熙坤▲고사=申基珍▲사무국장=金鎭東▲고사=張在明 崔仁求 洪鍾赫 孔泰煥 申基珍 鍾昌源 閔東원교수▲감사=權奇悰 李泰愛。

產業體 現場實習

工科大學 37個 企業體서

工科大學(學長=沈敬燮博士)는 夏期放學을 利用, 每年 實施해 온 產業體現場實習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8月30日까지 實施한다。

現場實習은 產業敎育振興法에 따른 것으로 工大生 4年生중 電子工科, 電氣工科, 化工科, 高工科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他科는 願에의해 실습에 참가할 수 있다。

本校는 지난 11日부터 각 과별로 약 1개월씩 韓國電力 天·社 등 全國37個 企業體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現場實習期間中 각과 교수진은 各企業體를 순회지도하며 실습학생들을 실습기간 중 실습계획서, 평가서, 일지 등을 作成, 제출해야 한다。이들 실습생들은 자기 전공분야와 같은 企業體에서 실습을 받게되므로 졸업후 전공분야 취업을위한 적성함양과 실기를 습득하게된다。

國民總和 앞장다짐

在鄕軍人會 東大職場會 創立

◇在鄕軍人會 東國大職場會 創立總會 광경。

工科大學 職場會(會長=洪鍾赫교수)를 組織, 지난 19일 오전 11시 敎授室에서 創立總會를 가졌다。

祖國이 또다시 위기에 처함을 보면서 이날 在鄕軍人會 東大職場會는 다짐한 이날 在鄕軍人會 東大職場會 創立總會는 고문인 李瑄根 總長을 비롯 會員 1백47명과 신흥준 在鄕軍人會 副會長등 다수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國民儀禮로 엄숙히 시작된 創立總會는 경과보고에 이어 申 在鄕軍人會副會長이 洪會長에게 職場會旗를 수여했다。

이어 李瑄根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각 지역사회와 職場會를 통한 總和團結만이 국난 극복의 길」임을 강조하고 「임하면서 싸우는 職場人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申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洪鍾赫회장은 독이 있었다。

한편 학생회관에있는 사무실(체육지도관)에 현관식을 가졌다。

在鄕人會 東國大 직장회의 임원명단은다음과같다。

▲고문=李瑄根총장▲회장=洪鍾赫교수▲부회장=孔泰煥교수 申基珍교수▲사무국장=金熙坤▲고사=張在明 崔仁求 洪鍾赫 孔泰煥 申基珍 鍾昌源 張在明 崔仁求 洪鍾赫 孔泰煥 申基珍 鍾昌源 金榮咸 宋鶴仁 權鎭東

社說

大學生과 夏季放學

本來 大學에서는 입격도야에 힘쓰는 물론것도 없거니와 특히 學問에 注力하는 도장이라는 點이 다른 部門과 다르다고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學問硏究는 계속 躍義를 들여야만 能率을 나타낼수 있는것이 아니라 休息을 適切하게 取해야하는 것이다。즉 休息하는 등안에 배운것을 消化할 뿐만 아니라 그 얻은 知識을 활용해야 산 學問이 되지 않을까 한다。이때서다 론 社會部門에서는 休暇가 없이도 되겠지만 學園社會에서만은 長短期間의 放學을 마련해 놓고 있는것이다。

이런 趣旨에 立脚하여 우리나라의 各大學에서는 올해도 例外없이 길든 짧든 여름방학에 들어갔으며 本大學도 그대열에서 빠지지 않고 夏季放學이 시작되었다。

금년도의 大學夏期放學은 例年의경우보다 대부분 짧다。왜냐하면 지난 봄의 學園사태대문에 休講을 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法定授業日數의 부족을 채우기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여름放學이 短期라고 해서 신경을 꼬는것이 必要는 결코 없을 것같이 생각된다。아무리 여름放學이 길다고해도 하찮없이 지낸다면 긴 放學은 아무리 지루하게 느껴질뿐인 것이다。그렇지않아도 再昨年의 油類값 파동으로 各級學校에서는 지난부터 燃料가드는 겨울放學을 길게 하고 그대신 여름放學을 단축시키는 傾向을 취하고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금년같은 휴교조치가 없다하더라도앞으로 여름放學은 종전보다 짧아질 것임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學問의 現今의 직접적 목적은 規範的 理論의 創案이 아니라 因果的 이론의 형성인 것이며, 또 國際政治의 어떤 現理現象의 矯正을 위한 관념적 處方箋의 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國際政治上의 實證的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간의 관계에 대한 客觀的 理解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같은 現在의 동향에 立脚하고있는 國際政治學의 理論들을 종합적으로 集約 분류하면 네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는 체계분석 이론이다。이는 국제정치 체계내의 기본적 요소를 즉 行動者들(주로 만족시키면서 相互依存관계의 정서를 유지하고 있는 相互作用의 구조를 설명하는 理論이다。

둘째는 行動理論으로서 國家의 決定作成者가 外交政策을 立案및 執行하는 方法과 過程에 대한 분석이다。이 行動理論에서는 目的과 手段, 決定作成, 可動能力, 制度, 政治體系와 환경간의 相互作用에 대한 분석이 主眼點이 되고 있다。셋째는 相互作用理論이다。이 理論은 國際政治 體系같 구성하고 있는 容分析, 國家間의 「內邦」 또는 「敵對」에 대한 態度測定에 사용되는 精神測定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國際政治學의理論的 試圖들은 過去의 政治理論」(傳統的 政治理論이라 부름) 의 두가지점에 대한 反省의 結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는 傳統的 政治理論이 政治的人間을 合理的인 目的 追求의 存在로만 솔합으로써 全體的 성격을 띨수 밖에 없는 價値의 문제가 政治現象 설명의 주요 도구가 되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政治的 現象의 質的 內容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이다。

Charles Beard, Hans J. Morgenthau, Gacques Martain등은 政治的 人間의 이미지를 「합리적 토마스·아퀴나스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理論들은 가치의 문제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엄밀한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政治的 현상의 「敎的인 면」이란 제가 되었다。이와같은 경향은 國際政治學에 있어서도 行動科學의 영향을 입어 인간행동의 철저한 분석에 있어서 인간의 目的指向的 행동을 主觀的 性格을 띠는 가치의 문제라는 이유로 객관적 증거만을 엄밀하게 다루는 科學的 분석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외면적 지각 반응적 행동을 한층적 문제해결의 촛점으로 삼는다。

行動科學的 思考의 영향을 받아있는 Kenneth Boulding, Herbert Kelman, Harold Lasswell, David Macleland Charles Osgood등의 國際政治學者들은 政治的인간의 모델을 「정치적인간」을 心理的動機와 社會學的인 條件形成의 存在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들은 인간의 政治的行動의 合理性의 추장을 거부하고 인간의 객관적 분석을 유동적인 배경과의 關聯에서 파악하고 있다。

行動理論은 과거의 政治理論이 目的指向的 행동을 主觀的 性格을 띠는 가치의 문제라는 이유로 객관적 증거만을 엄밀하게 다루는 科學的 분석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외면적 지각 반응적 행동을 한층적 문제해결의 촛점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 學問의 現今의 직접적 목적은 規範的 理論의 創案이 아니라 因果的 이론의 형성인 것이며, 또 國際政治의 어떤 現理現象의 矯正을 위한 관념적 處方箋의 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國際政治上의 實證的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간의 관계에 대한 客觀的 理解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같은 現在의 동향에 立脚하고있는 行動理論에서는 外交政策의 原動力을 經濟的 利益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Hans J. Morgenthau는 戰爭과 平和의 문제를 인간성의 權力鬪爭의 필연적 결과에 歸着시키고 있으며, Robert Strausz-Hupe는 外交政策을 이데올로기적 用語로 표현되는 道德的 콤미트먼트의 表象으로 설명하고있다。그러나 오늘의 行動理論은 과거의 政治的 행동의 單一의 목적추구에 의한 설명에서 탈피하여 이의 「大變革的修正을 요구한다。Richard Snyder와 그의 同僚에 의해 개발된 決定作成 分析은 外交政策을 複合的인 心理的 및 社會學的 決定要因으로 처리하고있다。

더우기 이 決定作成 理論에서 중요시 되는 個人의 動機와 役割에 대한 설명을 Games N. Roseuau에 의해서 提起된 「爭點」(issue area) 槪念에서는 個人의 動機의 强度와 내용 및 役割이 당면한 문제(issue)에 의해 결정되는 變數로 보는 입장을 취하기까지 한다。

다른 하나는 傳統的인 政治社會를 民族精神, 國家, 政治理論이 政治社會를 分析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槪念들이 가치적 현실의 보다 천저한 實證的인 식에서 얻어진 것이다。

즉 현실을 먼저하고 검증함으로서 그 關聯性을 밝혀 내려고 하고 있다。이로 인해서 경험주의가 정치적 현실의 참된 모습을 가리고 있었던 道德主義와 法律主義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因果關係의 多次元的 분석이 정치행동의 경제적 제가 政治的및 道德的인 면 二元的 해석에 대치됐던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국제정치학은 종래의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그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떨어버리고 19세기의 內的 심리학적 태도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경험주장하에 국제정치학의 대체적인 경향도 역시 실증주의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것도 점차 그 결점과 否定的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方法論的인 발전이대 政治理論의 최근의 새로운 치적 현실의 보다 천저한 實證的인 식에서 얻어진 것이다。

즉 現實政治學을 포함한 政治學의 연구가 전체적으로 行態科學에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고있다。예컨 들면 人間의 行動에는 實證的으로 관찰할 수 없는 行動에로 환원될 수 없는 規範分析的인 目的志向的인 행동과 근본적으로 價値判斷과 分離될 수 없는 主觀的으로 부여되는 행동의 一面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과학주의적 경향에 있어서도 인간을 가장 단순한 분석 가능한 소부분으로 分解하여 綜合的으로 이해하지 않고 短片的으로 分析하여 도리어 경험계를 歪曲시키게 이르고 있다。

國際政治學에 있어서도 위 「세련된」 그리고 「밀착」된 方法論이 理論과 격리되고 더나아가서는 實際的인 國際社會의 문제의 우리되면서 國際政治學의 方法論은 그 適合性(relevance)을 상실하게 되었다。여기서 우리는 國際政治學의 方法論과 理論및 國際政治學的 決定作成 過程의 분석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한 분석적 實體로서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알수 있듯이 國際政治學의 理論들은 종합적으로 가치적 현실의 보다 천저한 實證的인 식에서 얻어진 것이다。

즉 현실을 먼저하고 검증함으로서 그 關聯性을 밝혀 내려고 하고 있다。이로 인해서 경험주의가 정치적 현실의 참된 모습을 가리고 있었던 道德主義와 法律主義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因果關係의 多次元的 분석이 정치행동의 경제적 제가 政治的및 道德的인 면 二元的 해석에 대치됐던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국제정치학은 종래의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그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떨어버리고 19세기의 內的 심리학적 태도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경험주장하에 국제정치학의 대체적인 경향도 역시 실증주의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것도 점차 그 결점과 否定的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方法論的인 발전이대 政治理論의 최근의 새로운 치적 현실의 보다 천저한 實證的인 식에서 얻어진 것이다。

즉 國際

夏季奉仕活動과 마음의 姿勢

張 庚 鶴
<法博·大學院長>

國의 山河와 大海에는 수천년간의 우리 겨레의 歷史와 傳統이 서려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死守하여 祖國의 번영을 위해 내몸을 낡지 않는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근대화의 平準化는 祖國近代化의 至上課題인 민족의 힘을 利用하여 農村奉仕活動에 參與한다는 것은 결국 이 역사적 課業인 새마을운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農村奉仕活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터득하여 아할 것이다.

農村運動, 近代化의 生活哲學

새로운 大學生像定立과 연결돼야

奉仕活動…生命있는 農村常錄樹

農村에서는 三伏더위에도 生産을 위한 勞動이 中斷됨이 없이 증가시켜 계속된다. 우리는 더위를 피해 避暑地에서 한가하게 消費에 빠지는 것으로 滿足할 수는 없다. 아직 自然을 克服하지 못한채 近代的 文化의 惠澤을 미처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農村에 들어가서 講義室에서 배운 知識을 實地로 적용해 볼 만한 것이다. 農村奉仕는 이 나라 大學生들의 빛나는 先驅者的 傳統을 이루고 있다.

◇夏季奉仕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敎授및 學生들.

農村은 自然에 있지 않고 都市에 있다. 山과 江과 바다는 農村의 것이지만는 祖國愛를 굳게 가져야 할것이다.

自然은 農村에 있다. 山과 江과 바다는 農村의 것이지만는 祖國愛를 굳게 가져야 할것이다.

農村은 자연에 의존하는 원시적 農業에 묶여 있는 낡고 있다. 都市에비하여 近代化가 뒤지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대화의 平準化는 祖國近代化의 至上課題인 민족의 힘을 利用하여 農村奉仕活動에 參與한다는 것은 결국 이 역사적 課業인 새마을운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農村奉仕活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터득하여 아할 것이다.

農村은 經濟的으로 활성화되고 精神的으로 향상되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목표이다. 農村은 조국강토를 지키는 國防的인 면을 가지고 있다. 農村은 文化生活을 향상시키며 참다운 愛國心을 함양하며, 10월유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도장이다.

셋째, 새마을運動은 農村을 經濟的으로 활성화하는 운동이다. 우리들의 農村은 貧困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모든 국민은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傍觀者가 될수는 없다. 자기의 위치와 처지에서 형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새마을運動은 勞動의 神聖한 價値를 認識한다. 勞動은 生産을 가져온다. 우리는 消費의 快樂에 도취해서는 안되며 땀흘려 생산하는 勞動에 參與해야 한다. 빛을 우리는 勞動은 生命이요 思想이요, 光明이라고 말했다. 哲人은 이 세상의 하나는 勞動두의 休息이라고 말했다.

勞動은 빈곤을 물리치는 最强의 武器이며 自立經濟建設과 近代化의 原動力이다. 農生들은 社會奉仕活動에 있어서 農民들과 함께 땀흘려 作業함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 夏休를 활用하기 위해 社會奉仕活動에 參加하는 學生들에게 새마을運動의 基本精神의 主要點을 指摘해 보았다. 그 精神을 깊이 간직하고 實踐에 參與하는 學生들은 命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東國人의 名譽를 위하고 나아가서 祖國近代化와 維新大課業의 發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커다란 成果를 거두어주기 바란다. 그것이 公式的이는 非公式的이는 나에겐 생생한 活力素가 되어주는 것 같다는 것을 강조한다.

◇長光謨=旅行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探究의 적응력을 길러 주는 좋은 知識의 온실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때로는 수많은 困難이 있어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은 1주일 내지 1주일 정도의 旅行을 하고 있음이다. 그것이 公式的이는 非公式的이는 나에겐 생생한 活力素가 되어주는 것 같다는 것을 강조한다.

◇鄭處長=旅行은 학생에게 한지붕 한솥밥 먹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때에 발휘되는 조국의 비약적인 힘은 民族統一을 위한 절국민적인 일대 각진운동의 추진력이 될것이다.

둘째,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벌서 수년이 되였으나, 특히 도시의 지식층·기업인등은 절박의 火災視하는 경향이 없지않았다. 知識과 金力이 外懷을 無飾하여 特反視되는 限 부조리의 培養土의 구실을할뿐이며, 정신혼련이 없는 새마을운동은 韓國的民主主義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長光謨=農村에서의 문화적 낙후현상은 施設不備에 그 원인이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농한기만되면 자연히 화투놀이나 그밖의 非生産的인 生活이 벌어지는 것은 最近 새마을운동에 힘입어 비법하우스를 利用한 겨울農作등 새로운 餘暇利用法도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鄭處長=餘暇利用의 최대목표는 自我의 發見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公的으로는 써클및 단체를 통한 奉仕活動을 함으로써 리더로서의 資質向上및 民衆에대한 이해심을 기르는 것이 되겠고, 個人的으로는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취미가 없는 사람을 무미건조한 생활이 되고 말입니다. 西歐에서 老人敎育을 통해취미활동을 권장하고있는것은우리들한테 큰 교훈이 됩니다.

◇長光謨=農村에서의 문화적 낙후현상은 施設不備에 그 원인이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농한기만되면 자연히 화투놀이나 그밖의 非生産的인 生活이 벌어지는 것은 最近 새마을운동에 힘입어 비법하우스를 利用한 겨울農作등 새로운 餘暇利用法도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鄭處長=餘暇利用의 최대목표는 自我의 發見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公的으로는 써클및 단체를 통한 奉仕活動을 함으로써 리더로서의 資質向上및 民衆에대한 이해심을 기르는 것이 되겠고, 個人的으로는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취미가 없는 사람을 무미건조한 생활이 되고 말입니다. 西歐에서 老人敎育을 통해취미활동을 권장하고있는것은우리들한테 큰 교훈이 됩니다.

◇鄭處長=우선 餘暇善用의 일반적 의미부터 알아보기로합시다. 여가란 英語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의미로는 단순히 休養, 기분전환등을 뜻하지만 좀더 意義를 찾아 생각할 때 이것은 생활의 활력소 연료를 함수있는 再生産, 再創造를 뜻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수 있는 生産的인 휴식및 기분전환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즈음은 레크레이션이 오락적, 수동적인 면으로만 발전, 정신적인 퇴폐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칭 레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具光謨=날은 시간을 폭음적으로 적당히 보내는 소극적인 여가이용을 수동적이라 표현한다면 능동적인 여가이용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취미활동이나 生産的 휴식을 뜻하는 것이겠군요. 그리나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인부활 제의한 대부분이 폭음이고 무가치한 낭비로 쓸리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실례로는 다방이나 당구장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들이 많은가하면 심한 경우 고고클럽을 자주 찾는 퇴폐적인 면도 무시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朴美仙=저는 여가를 靜的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싶읍니다. 動的인면에는 테니스, 탁구, 등산등 운동을 비롯해서 經濟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自動車 운전이나 낚시 등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靜的인 면에는 音樂감상, 藝術展, 연극, 영화, 독서등이 있겠지요. 低廉한 비부분 정치人關係를 충족하여 대학생이라면 대학생활을 하여 학생 대학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차츰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자기중심적인 정서에 푹 빠져하는 추세입니다.

◇鄭處長=적어도 대학생이라면 가를 이용, 취미생활을 해야할것입니다. 오즈음 젊은이들이 대부분 음악감상을 즐기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맥스를에서 제공해주는 레저정보를 일방적으로 受用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좀더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思考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長光謨=농한기에 농촌지도소 등 농촌지도소) 농촌을 각각 선출했다.

이지연 건국대 부총장 박재기 나라여 일지 박소년 속초시중앙동 제일연이용소 이창복동부동 법소년 이창복동부동 법소년 이용소 이창복동부동 법소년 이용소 이창복동부동 법소년 이용소

敎授들께 들어보는 여름放學

知性과 浪漫의 季節

設問

1. 放學이란?
2. 이번 放學을 어떻게 보내시려는지?
3. 放學中 학생들에게 권하고싶으신 활동은?
4. 放學中 권하고싶으신 책은?

放學 四章

洪庭植

浩然之氣 길러야

①방학을 맞자 그때로 해석합다면 휴식을 뜻하겠지만 해그 意味는 좀더 깊이 생각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의 삶중에서 배움의 시기만큼 중요한 것은없으며 배움의 도정에서 쉼이 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욕심을 부린다면 山寺에 다란 자유로 이란 것이다. 방학 운, 비교적제약없는상태에서자신을 맡고 여유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모처럼의 자유로운 시간 임데, 산과 바다놀지에서 인위적인 제약을 벗어난, 자연속에 안길 수 있는 浩然之氣를 기르도록 당부하고 싶다.

또한 다음에 닥칠 어떤일이라도 참내 할수 있는 건강 역시 축적하는 기회로삼아야 할것이다.

각자 기호에 맞춰 자연을 찾는데 있어서 바캉스 붐등 유행의 맹방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격적인 호연지기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학은 학교의 시간표에 얽매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니만큼 자신의 본격적인 호연지기를 연구해야 한다.

덧붙이다면, 학생신분에 맞게 조용한 휴가를 보내 짬을 유효한 방학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나 마 바란다.

④法句經을 읽어서 마음의 수양을 쌓는데 있다는 말씀하신 가운데 金剛經 天台學 장의를 해오던중 天台學에 대한 개론서가 없어 많은 곤란을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간준비한 자료를 엮어 금년중이라도 出刊해 볼 예정이다.

③모처럼의 자유로운 시간 중에 안길 수 있는 造然之氣를 기르도록 당부하고 싶다.

또한 다음에 닥칠 어떤일이라도 참내 할수 있는 건강 역시 축적하는 기회로삼아야 할것이다.

각자 기호에 맞춰 자연을 찾는데 있어서 바캉스 붐등 유행의 맹방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격적인 호연지기를 연구해야 한다. 우선 가장 손쉽고 (?)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파의지도, 도서 세일즈등이겠는데 나의 아르바이트는 좀 색다르다면 색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관광회사에서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직업사진사였다. (회사에서는 사진기사라고부른다.)

우리 동문의 소개로S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진기사로 첫 出寫(사진찍으러 관광단과 행동을 함께 한다) 을 나간 것을 지난 가을이었다.

그 첫 出寫의 아침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인다. 비록, 학생의신분이기는 하지만 엥엘한 것이라고 의하려고 몇번이고 한 사람 몫을 해내야만 한다고 스스로 다짐 두어야 했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아침.

나는 미지의 세계에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관광버스에 오르는 관광객들의 즐거운 표정이 쌀쌀해지는 몸가를 돌으며 한 발 두 발을 차바퀴에 부드러워고 있었다.

사진기사로서 한사람 몫을 해야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든 손에서 의습이 나는 때마다 가슴이 설렜해졌다.

장의가 없는 주말을 이용, 홍은동 모을 수 있는 첫 인원보다 거리낌을 가져왔다.

즉, 관광객들이란 버스를 탈때부터 여행기분에 들떠있는 반면 촬사 나가는 사진기사는 이것이 여경행이지 아니라 직업이라는 관념을 갖고 돌임 없이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확신한다.

내장사, 설악산, 한려수도등지의 관광명소를 구경했다는 것 보다도 갖가지 인간군상이 관광단 에 모일때 벌어지는 우습고 슬슬한 일들 눈실 적루려지는 일들이 생각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저속하다거나 힐들었다고 느끼기 보다는 이사회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정과 부정의 파문을 일으켜왔다. 무엇보다도 가장크게 얻은것은 아무리 하찮은일이라도 자신의일, 맡겨진 일에는 진지하게 달려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포장도 되지않은 도로를 몇시간씩 흔들리며 가는 시간, 어쩌면 본격적인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는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다. 무의미한 것같은 시간이 자신을 재확인하는 기회가된다.

다시 여름을 맞는다. 구름과 바다, 산과 숲을, 열기속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밤의 불빛, 나는 사람들의 표정속에서 진지함을 보게될때 가장 큰 것은 우리 현실의 한일 면이기도 하다. 우선 가장 손쉽고 (?)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파의지도, 도서 세일즈등이겠는데 나의 아르바이트는 좀 색다르다면 색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관광회사에서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직업사진사였다. (회사에서는 사진기사라고부른다.)

우리 동문의 소개로S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진기사로 첫 出寫(사진찍으러 관광단과 행동을 함께 한다) 을 나간 것을 지난 가을이었다.

그 첫 出寫의 아침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인다. 비록, 학생의신분이기는 하지만 엥엘한 것이라고 의하려고 몇번이고 한 사람 몫을 해내야만 한다고 스스로 다짐 두어야 했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아침.

나는 미지의 세계에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관광버스에 오르는 관광객들의 즐거운 표정이 쌀쌀해지는 몸가를 돌으며 한 발 두 발을 차바퀴에 부드러워고 있었다.

사진기사로서 한사람 몫을 해야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든 손에서 의습이 나는 때마다 가슴이 설렜해졌다.

장의가 없는 주말을 이용, 홍은동 모을 수 있는 첫 인원보다 거리낌을 가져왔다.

즉, 관광객들이란 버스를 탈때부터 여행기분에 들떠있는 반면 촬사 나가는 사진기사는 이것이 여경행이지 아니라 직업이라는 관념을 갖고 돌임 없이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확신한다.

내장사, 설악산, 한려수도등지의 관광명소를 구경했다는 것 보다도 갖가지 인간군상이 관광단 에 모일때 벌어지는 우습고 슬슬한 일들 눈실 적루려지는 일들이 생각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放學

盛夏를 이기는 젊음들

○ 여름이 제나름대로 길을 낸 교차로. 執念덩어리 책가방을 ○
○ 힘으로 들고가는 사람. 도서관은 고요로 그 무게를지 ○
○ 탱하고 여름의 뜨거운 숨결을 知性으로 同化시킨 ○
○ 다. 歲付奉仕를 떠나는 사람의 땀에 젖은 배 ○
○ 낭엔 村사람의 소박한 웃음을 따겠다는意 ○
○ 欲이.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여행가방엔여 ○
○ 름의 소리와색깔을 담아오겠다는 심그러움이. 배움 ○
○ 의길을 자기 힘으로 지탱해야 하는 사람은 방학이란 ○
○ 큰 빗자루로 길을 닦는다. 모두 익는다. 결실을 向한 행군. ○

旅行

金智錫

지난번 친구중에 아주재미있는 아이가있었는데, 그 아이와 내가 함께하기로 결어가서 인적없는 해변의 모래 위에 싣자 가 하나만 놓여있는 하얀 예배당을 발견한다거나, 해변으로부터 육지를 향해 걸어가다가 이윽고 초가지붕의 농가를 발견하는 정도였다. 그 친구가 서울에 있을 때는 남산을 잘 오르내렸다. 그것도 찌는듯한 여름날에 특히 그러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며 오르는 것이다. 편한 것만 찾는 나는 물론 한번도 그렇게 시도해 볼 일이 없다. 그렇게 나도 한해 그렇게 지나고 나서 하고픈 사이를 누비는 것처럼 보면 1 태언덕을 누빈다. 그리고 때로는 해당화 꽃을 볼 때도 있었다. 그때 같이 있는 친구는 수분 재치있는 기자를 달 것이다. 나는 기자를 달고 싶다. 그들의 눈이 없이 많을것을 기대하며. 지난 겨울 합격자 발표가나 도중에 우리는 송광사와선 스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때 우리는 송광사와선 스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 그들의 눈이 없이 많을것을 기대하며. 지난 겨울 합격자 발표가나 도중에 우리는 송광사와선 스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 그 때